

오피니언

다산포럼

유지나



설날 연휴, 미국에 사는 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세시봉 콘서트를 보며 울고 웃으며 느낀 감동을 전해왔다. 평소 TV를 안보니 당연히 못 봤지만, 언니가 강하게 느낀 노스탈지거 걸들이 감동이 고국에 사는 내게도 와 달았다. 영화관 이전에 음악관인 내게 한국이 넣은 천재 뮤지션은 신중현과 송창식이다. 그러나 의무감처럼 당장 인터넷에 들어가 지난 추석에 방영되었던 세시봉 토크쇼를 보았다.

40여년 지기만이 나눌 수 있는 이야기를 하다가 누군가 통기타를 들으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연스러운 하모니는 힘을 차게 만든다. 깨끗한 한복 차림의 송창식이 여전히 우수에 담긴 환상적 미성으로 들려주는 과거의 노래들, 번안 포크송으로부터 한국식 가락에 영향을 받으며 만들어낸 곡들, '한번쯤', '맨 처음 고백' 그리고 '담배가게 아가씨'... 성형하고 춤을 가르쳐 만들어낸 돈벌이용 기획가수를 아이돌스타라고 떠받드는 대중음악 상업화 시대, 그야말로 음악의 본질을 죽

여 버린 이 시대에 노래인생에 자신을 받치며 밥만 먹여주면 노래하던 이들을 집단으로 만나는 것은 신선한 충격과 감동이었다.

30여년 우정을 나눠온 선배언니와 이들의 콘서트를 뒤늦게 따라잡으며 보노

디스 (Oldis but Goodis), 오래된 것이지만 좋은 것'의 가치를 일깨워 준 사건이다.

세시봉 친구들이 서로 협상을 하더라도 신뢰와 사랑이 배어나오는 유머로 활동하는 것도 40여년 우정의 힘 덕분이다. 그 사람 자체를 있는 그대로 좋아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열창한 '렛잇비유(Let it be you)' 그 자체이다. 여자를 중엔 결혼 후 친구를 잊기도 한다. 안타깝기 짙어 없는 일이다. 하지만 여자 역시 우정의 힘으로 산다. 우정의 진실을 노래 속에 보여준 '맘마미야'가 뮤지컬로 또 영화로 대성공을 거둔 이유가 그 증명이다.

역할에 지쳐 떨어져 나간 중년 남자들이 우정의 힘에 기대 밴드구성으로 새롭게 출발하는 제2의 인생을 정겹게 드러낸다.

오래된 친구는 삶의 보물이다. '그건 너 무 좋은 거야라는 뜻의 불어 세시봉(C'est si bon!)'이다. 이브 몽탕이 부른 이 상송은 "서로 팔을 낀 채 이 노래 저 노래를 부르며 아무데로나 떠나는 건 세시봉!"이라고 노래한다. 이 노래에 반한 루이 암스트롱이 미국에서 영어판 리메이크를 만들기도 한 전설적인 노래이다.

아마도 그 양상을 좋아하는 분이 고달픈 전후 음악다방 이름을 그렇게 지은 것이라. 그리고 40여년이 흐른 후 세시봉은 이제 한국 사회에서 단순한 상승 제목이 아니라 음악 우정의 상징으로 활동하기에 이르렀다. 당신의 우정에 우리의 우정에 '세시봉!'이란 축하인사를 보내드린다.

팁 : 아쉬운 점은 이들과 우정을 쓰아온 이들, 그중에서도 군사독재시절 억압과 얼토당토 않은 금지곡을 당했던 음악 시인 김민기의 부재이다. 표현의 자유 문제가 이야기거리가 되지 못한 것, 그것 또한 이 시대를 보여주는 것일까?

〈동국대 교수·영화평론가〉

* 본란의 내용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시봉의 감동, 호모루텐스 우정

라니, 이들로부터 많은 이들이 느낀 감동의 핵심은 오래된 음악 우정이라는 생각이 든다. 와인 맛의 짐수가 세월이 발хи시킨 그윽함에서 나오기며 '오래된 우정이란 오래된 와인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이다.

세시봉 콘서트를 보며 '우리도 저렇게 늙자'라고 친구들과 다짐한 것은 새해의 축원이었다. 새로운 것에 도취하여 젊음을 중독증에 걸린 한국사회에 '올디스 밋 구

그런 면에서 세시봉 친구들은 '남성판 맘마미야'이기도 하다. 특히 인간의 영혼을 위로하고 삶을 고무시키는 음악을 매개로 한다면 유희하는 인간의 본질에 정초한 '호모루텐스 우정'이야말로 우리를 고단한 삶으로부터 구원한다.

음악을 매개로 삶을 구원하는 우정의 힘을 보여준 영화들이 떠오른다. '즐거운 인생'(이준이, 2007), '브라보 마이 라이프'(박영훈, 2007)에선 돈벌이와 가장

NGO 칼럼

류봉식



이번처럼 설 명절 민심이 심란했던 적이 있었던가. 서민들은 치솟는 물가에 울고 싶은 심정이었고, 그나마 마음을 달랠 고향방문도 쉽지 않았다.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50년만에 최악의 구제역이 한국에서 발생했다'며 각국의 검역당국에 경계령을 내리는 성명을 발표할 정도로 심각한 구제역 파동 때문이다.

구제역 발생 2개월만에 전체 사육가축의 22%에 해당하는 310여만 마리의 소, 돼지가 살처분됐으며, 별씨 2조원이 넘는 정부재정이 들어갈 판인데, 더 큰 걱정은 이 사태가 언제까지 지속될지, 어디

였던 것이다.

원망스러운 것은 이것만이 아니다. 예지중지 기록된 가축을 생매장 해야했던 농민들의 절망과 한숨 앞에 대통령과 관련 장관들이 나서 '집주인이 도둑잡을 마음이 없다', '보상금 타내려 구제역 방역에 나서지 않는다' 등 방역실패 책임을 농민들에게 떠넘기려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구제역은 농민들 개개인이나 지역에 수준에서 수습할 수 있는 전염병이 아니다. 국가차원의 총력대처가 없으면 막을 수 없는 제1종 법정전염병이라 한다.

기고

이영숙



우리는 물밀듯 한 변화 속에 등 떠밀려 생활하고 있다. 새로운 정보와 첨단 과학기술의 출현이 우리의 삶을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나라가 과학기술 발전에 매진한 결과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은 곧 선진국 가로 도약하고 발돋움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선진화 및 과학분야 인력개발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지난 2000년에는 과학기술 7위권 진입으로 선진 7개국 정상회담인 G7에 참여하려는 국가적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과학기술분야는 났다. 권역별 일반계 고등학교 여학생의 이과선택 비율이 수도권이 23.9%인 것에 비해 호남권은 36.1%로 이 지역 이공계 대학생의 취업준비에 보다 현실적인 정책적 지원과 제도적 장치가 시급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현재 이공계 미취업, 경력단절 여성의 역량개발을 통해 취업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가 수행하고 있다.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는 2006년 6월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 제14조 제2항에 의거해 설립되어 이공계 출신 여성들을 위한 교육·연수프로그램

우리는 물밀듯 한 변화 속에 등 떠밀려 생활하고 있다. 새로운 정보와 첨단 과학기술의 출현이 우리의 삶을 급속하게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모든 나라가 과학기술 발전에 매진한 결과이며, 과학기술의 발전은 곧 선진국 가로 도약하고 발돋움할 수 있는 원동력이다. 우리나라도 국가차원의 과학기술 선진화 및 과학분야 인력개발의 중요성을 주장하며, 지난 2000년에는 과학기술 7위권 진입으로 선진 7개국 정상회담인 G7에 참여하려는 국가적 목표를 설정했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과학기술분야는

구제역 정부 대책 너무 한심하다

까지 갈 것인지를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국가적인 비상상황이다.

1, 2차 백신접종에 국내 최고수준의 철통 같은 방역시스템을 가동했던 국립 축산과학원과 구제역에 구멍이 뚫리는데 판에 그 어이인들 안전한 곳이 존재할 수 있을까?

AI로 인해 300만 마리의 닭과 오리가 살처분된 전남이 구제역피해만은 아직 없다 하여 다행이라고는 하나 언제까지 안전할지 누가 알 것인가? 어서 제발 이 재앙이 끝나기만을 빌어볼 뿐이다.

도대체, 처음 겪는 일도 아닐진대 이번에는 어찌하여 전 국토를 쑥대밭으로 만들도록 무기력했던 것일까. 김대중 정부 때 '방역도 국방이다'며 군 병력까지 신속하게 투입하여 총력전을 편 걸과 조기진압에 성공했던 경험을 보더라도 초동방역시스템만 확실하게 가동되더라면 이렇게까지 전국으로 번지지 않았을 것인데, 이 나라 정부가 원망스러울 뿐이다.

전염병은 초기대응이 생명이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구제역 발생 당시 전쟁불사를 외치면서 서해군사훈련에 치중한 탓에 초기대응이 부실할 수밖에 없었고, 초기대응에 실패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것은 필연적인 결과

더구나 축산업이 갈수록 밀식 사육, 기업화, 세계화되면서 국가적 방제시스템은 이미 국가안보차원에서도 중대한 사안이 된 마당에 '농민 뒷'이라 정신 나간 소리다.

농민들은 지금도 방역현장에 밤잠을 설치며 구제역을 막기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부처를 뛰어넘어 범 정부 차원의 비상총력대응도 부족한 판에 '농민들의 도덕적 해이'와 '매뉴얼 잘못'으로 책임을 돌리거나 그 의도부터가 불순한 개인 모의를 할 때가 아닌 것이다.

정부는 재앙을 막지 못한 책임을 솔직히 인정하고 책임지는 자세를 보임으로써 농심을 달래고 구제역 진압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아울러 국가전염병비상사태를 선포하고 2차 침출수 오염방지, 구제역 방지대책 등 긴급조치와 축산농가의 피해보상과 축산업 보장을 위한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나아가 재앙을 초래한 이번 사태에 대한 국정조사를 비롯한 철저한 검증과 관련 당사자들의 책임을 묻고 재발방지를 위한 근본적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광주전남진보연대 집행위원장〉

남성 중심적인 영역이었을 뿐만 아니라 이공계 전공 여성은 결혼과 육아문제로 경력단절 현상이 매우 심각했다. 이에 정부는 2001년부터 여성부(현 여성가족부)를 신설하였고, 2002년 말에는 '여성과학기술인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2006년에 발표된 '제2차 국가인적자원개발기본계획'(2006~2010)에서도 '여성 인적자원개발 활성화'를 위하여 과학기술분야에 여성의 진출을 확대하기로 했다. 같은 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여성인력개발종합계획'(2006~2010)도 '과학기술분야의 여성일자리 확대'를 중요한 과제로 다루었다.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정책에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열악한 재원과 사업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우선은 이공계 여성 스스로 역량개발을 위해 교육과 훈련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자자체와 대학, 지역사회 산업체와의 유기적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의 발전과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을 위해 새로운 산업 흐름을 파악하여 공급과 수요의 통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지역 전략산업,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연구개발에 여성과학기술인 참여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이제는 이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획기적인 도약이 필요한 때이다. 그러나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의 열악한 재원과 사업인력만으로는 역부족이다. 우선은 이공계 여성 스스로 역량개발을 위해 교육과 훈련에 적극 참여해야 하며, 자자체와 대학, 지역사회 산업체와의 유기적 연계 시스템 구축으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 지역의 발전과 여성과학기술인의 취업을 위해 새로운 산업 흐름을 파악하여 공급과 수요의 통로를 발굴하는 것이 중요하며, 정부 예산이 집중 투입되는 지역 전략산업, 차세대 성장동력 산업의 연구개발에 여성과학기술인 참여를 제도화하는 노력이 시급하다.

이제 이 지역 여성과학기술인을 위한 정부 예산이 지원을 위해 노력하고 관심을 기우려 여성과학기술인력이 새로운 도약을 하는 2011년이 되길 희망해 본다.

〈광주전남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장〉

주택가 소화기 비치 홍보해 화재 효과적 대처를

소방도로에는 차를 주정차시킬 수 없다. 그러나 도심에 차는 많고 주차공간이 부족하다 보니 이게 지켜지지 않고 있다. 더군다나 요즘은 토요일 휴무기업들이 많아 직장인들이 차를 주택에 근처에 주정차하는 경우가 많아 주말에 주택가 화재가 발생하면 거의 속수무책이다.

이 같은 화재진화의 어려움 때문에 소방관들의 고생도 이해해야 한다. 주택가 소방도로 불법주차 때문에 초기진화에 실패했다는 뉴스 멘트도 단골이 돼버렸다.

현재 소방방에서는 주택가 100미터 구간마다 소화기를 비치하도록 해놨다. 그러나 실

제 주택가에는 소화기가 비치된 곳이 별로 없고 주민들은 아예 그런 규정이 있는지조차 모른다.

그럴 경우 어느 날이든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가 오기 전에 미리 주민들이 곳곳에서 소화기를 가지고 나와 초기진화를 할 수 있다. 만약에 대비해 민방위 훈련을 하듯 주요 지점의 가정에 소화기를 비치해놓고 반상회 때마다 주민들에게 소화기 위치를 주지시킨다면 언제 화재가 발생하더라도 주민들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다.

▲ 허명호·광주시 서구 풍암동

◆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만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7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시설

가축 매몰지 2차 환경오염 철저히 막아야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로 수백만 마리의 가축이 매몰된 가운데 대규모 '2차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불법 매몰지 흙이 갑자기 무너져 내리거나 봉지 유실될 경우 최악의 환경재앙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이 있다.

구제역으로 6일 현재 살처분된 가축이 310만 마리를 넘어섰고 전국 매몰지는 4000여 곳에 달하고 있다. 여기에다 지난해 말 발생한 AI 여파로 지금까지 500여만 마리의 닭·오리가 전국 197곳에 매몰된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는 긴급 매몰처리로 지하수 오염, 악취발생 등 2차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축 매몰지 주변의 환경영향조사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 올 수 있는 가축 전염병 2차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짜내야 한다. 특히 가축 살처분과 매몰을 대신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 있다는 점이다. 그동안 가축 전염병 차단에만 급급해 환경오염에 대한 대비책 없이 산비탈 등 가축을 묻어서는 안 될 곳에 매몰지를 조성했기 때문이다.

이는 매몰지 유실로 인한 토양 오염은 물론 매몰지 내 침출수 유출에 따른 지하수의 장기 오염 등 엄청난 재앙을 불러 올 수 있다. 이만의 환경부장관은 "이번 가축 매몰로 지금까지 우리가 겪어보지 못한 환경재앙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긴급 매몰처리로 지하수 오염, 악취발생 등 2차 오염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가축 매몰지 주변의 환경영향조사에 나서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하지만 이런 대책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부는 엄청난 재앙을 불러 올 수 있는 가축 전염병 2차 환경오염을 막을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짜내야 한다. 특히 가축 살처분과 매몰을 대신 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진보교육감들, '친정체제 강화'가 개혁인가

진보 성향의 장휘경 광주시 교육감과 장만채 전남도 교육감이 '제 입맛에 맞는' 밀어붙이기식 인사를 추진하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광주와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기획 중심의 교육발전 및 혁신기획단을 해체하는 대신, 인력과 권한을 강화한 정책기획단을 운영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개편 내용을 보면 교육감의 친정체제를 보